



사진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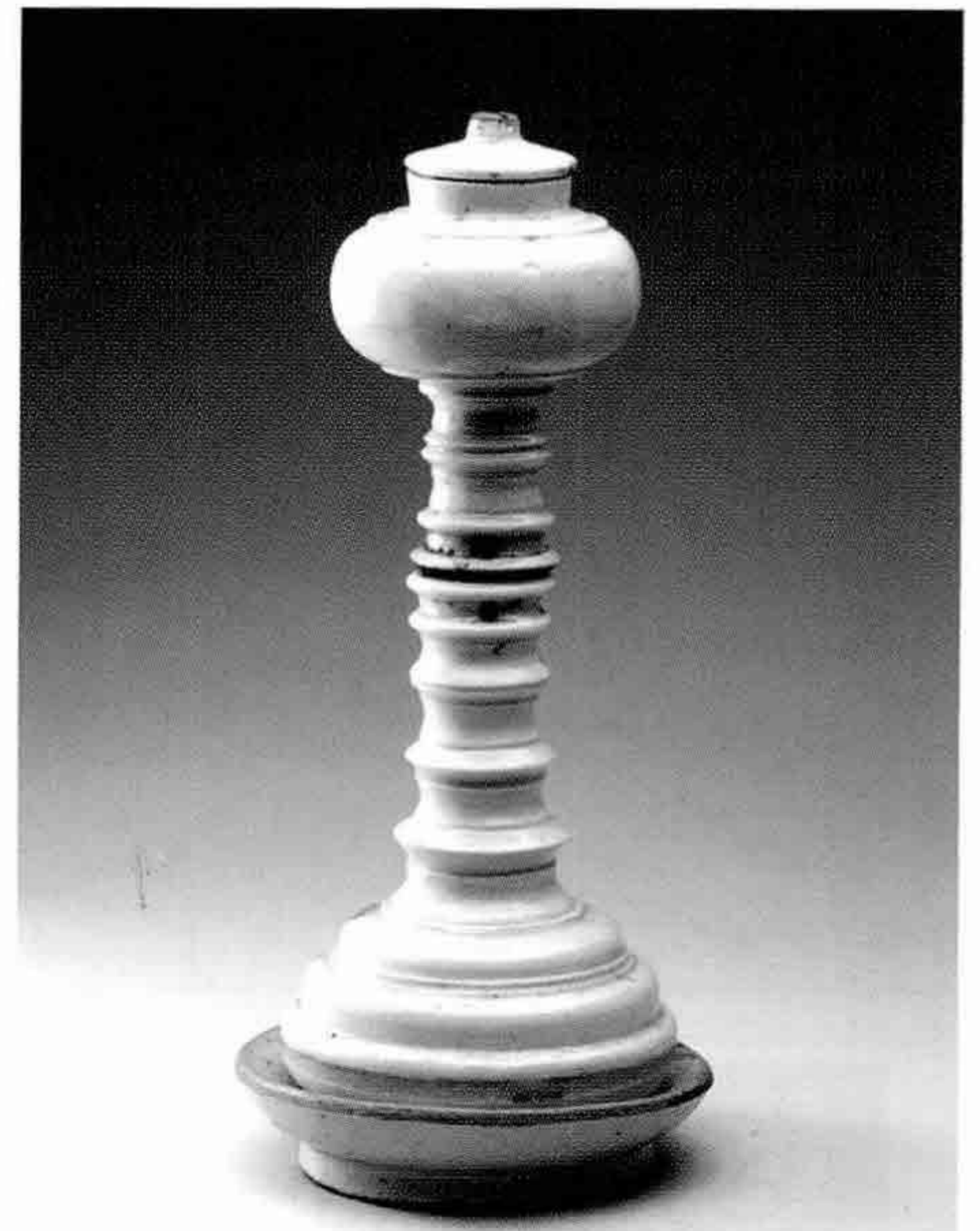


사진2

## 우리의 옛 등잔을 찾아서... ⑩ 석유등(石油燈) - 서등(書燈)

서등(書燈)은 글을 읽을 때 켜 놓는 등불로서 '서경'이라고도 하며, 주로 글하는 선비들이 애용했던 등잔이다. 석유가 수입되기 전까지는 좌등(坐燈)이나 사방등(四方燈)처럼 얇은 나무판으로 상자를 만들어 앞면에 문을 내고 윗면에 둥근 환기공(換氣孔)을 낸 다음 검은 칠을 한 것으로, 등 안에 초나 등잔을 넣어 쓸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. 문을 열면 등불이 곧바로 책을 비추었기 때문에 선비들이 집중해서 글을 읽을 수 있었다. 조선후기 석유가 수입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서등은 자기(磁器)로 만든 등잔으로 바뀌었고, 다시 전기가 도입되면서 전등(電燈)으로 대체되었다.

사진의 두 백자서등은 석유를 연료로 쓴 석유등이다. 사진 1)의 경우는 등의 상단 내부에 따로 금속 원통을 고정시켜 여기에 기름(석유)을 붓고 뚜껑을 얹은 다음, 다시 뚜껑 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심지를 빨 수 있도록 하였다. 보통 등잔을 위에 얹어 사용하는 등가(燈架)의 경우 등잔대와 등잔을 분리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, 이 경우처럼 두 부분을 결합시킨 일체형도 볼 수 있다. 두 등잔 모두 둥글고 널찍한 밑바탕에 대나무 마디 모양을 형상화한 죽절문(竹節文) 기둥이 서고, 그 위에 등잔을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등잔의 기둥부분을 자세히 보면, 기둥 아래위를 맞댄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자기를 빚을 때 따로 분리하여 만든 다음, 다시 두 부분을 결합한 것이다. 더러 이 부분의 경우 살짝 자연목을 넣어 한층 조형미를 뽐낸 것도 볼 수 있으며, 또한 사진 1)의 등잔처럼 '근' 자문을 넣어 길상(吉祥)의 의미를 담아내기도 하였다.

설명 민병근(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)

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

사진 1) 백자서등(白磁書燈)

조선후기 // 밑지름 11.4cm, 높이 35.2cm

사진 2) 백자서등(白磁書燈)

조선후기 // 밑지름 11cm, 높이 31.7cm